

“묵묵히 서 있는 저 소나무와 동백 어쩔, 내 인생같아”



‘四百年 王소나무’



57년 화업 인생 갈무리
김준호 화백

광주서 ‘소나무’ 전시 열고
서울서 ‘동백’ 주제로 전시



그리움-1

지난 27일 오전 만난 김준호(77) 화백은 소탈한 성격이 엿보였다. 약 반세기 동안 작품활동을 하면서 자랑거리나 내세울 이야기가 많을 법도 한데 겸손한 태도로 일관했다. 풀갈함 가득한 그의 화실은 이젤, 작품들, 자료집 등만 가득 쌓여있을 뿐 그의 성격만큼이나 별다른 장식품은 보이지 않는 정갈한 모습이었다.

김화백은 지난달 광주에서 희수 기념전을 연데 이어 2~8일 서울 갤러리 라메르에서 생애 마지막 개인전 개최를 앞두고 있다. 김 화백을 만나 인생과 화업에 대해 들어봤다.

김화백은 “지금껏 회화이나 고화 등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희수 때는 그동안의 작품활동을 한번 정리하고 싶었다”며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도 따라주질 못해 이번 개인전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 소재는 동백이다. 그의 미술인생 전반기가 ‘모과’로 대변된다면 하반기는 동백이다.

빨리 피었다 지는 화려한 여느 꽃과는 달리 오래도록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묵묵히 피어있는 동백은 그의 인생과 닮았다.

“저는 한국적인 서정을 캔버스에 옮기는 작업을 평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제가 선택한 장르는 구상(具象) 미술이었죠. 저는 소재가 가진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기에는 구상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분위기와 배경을 보고와야 직성이 풀렸죠. 덕분에 몸이 많이 고생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사색을 많이 다녔다고 자부한다. 현장에 가봐도 소나무나 꽃이 주위 환경과 어떻게 어우러지고 장소가 가진 분위기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번은 무등산 서석대 밑에 위치한 진달래 군락지를 찾아가는데 꽃의 상태나 날씨 등이 그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아 4년이나 다시 올라간 일도 있었다. ‘동백과 동백새’라는 작품은 배경 때문에 완성하는데 3년이나 걸렸다.

김 화백은 “일부 화가들은 사진작가들에게 사진을 달랑 한장 얻어 그 사진만 보고 그리는 경우가 있다”며 “사진이 보여 주는 틀 안에서만 갇혀 그리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젊은 작가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미술은 사실-구상-반추상-추상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최근 추상화가 각광 받다보니 미술대학을 갓 졸업한 작가들이 기초는 등한시하고 처음부터 추상화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나주 출신인 그는 광주사범대학 미술과를 졸업했다. 원래 인문학도를 꿈꿨지만 학과를 선택할 때 묘하게 ‘미술’이라는 단어가 끌렸다고 한다. 교사, 미술학원 운영 등 교육자의 길을 걸던 중 시련이 찾아온 것. 지난 1986년 대장암 진단을 받았던 것.

갑자기 찾아온 병마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학원 운영을 그만 두고 전업작가로서 발을 내딛었다.

무등산을 수없이 오르내리고 제주도, 울릉도, 금강산 등 전국을 돌며 현장 스케치를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그의 화실 한편엔 수십권의 스케치북이 쌓여 있었다.

“저는 천재적인 다른 작가들 처럼 그림을 처음부터 잘 그리지 못했어요. 드로잉만 하더라도 초기엔 마음에 들지 않아 찢은 게 수천장이예요. 결국 꾸준히 그리다 보니 점점 솜씨가 는느꼈 느껴요.”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던 김화백은 아직 작품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 마지막 개인전을 치른다고 해서 작품 활동을 소홀히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앞으로는 예전에 병마와 싸울 때 마음속 한을 풀어주던 무등산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 생각입니다. 전처럼 현장에 자주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붓을 놓을 생각은 없어요. 단체전 등에서 남도의 서정을 담은 작품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입니다.”

김준호기자 kimyh@kwangju.co.kr

“다빈치가 아니라 내가 그렸다”

1700억 호가 ‘라 벨라 프린치페사’ 진위 논란

1억 파운드(약 1744억원)를 호가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위조 화가의 그림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영국 미술계가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29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의 위조 화가로 유명한 손그린현은 신간 회고록 ‘한 위조 화가의 이야기’에서 다빈치의 작품으로 알려진 ‘라 벨라

작품으로, 그림 속의 여성은 1490년대 그의 후원자 가운데 한 사람의 부인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그린현은 이 그림이 1400년대에 그린 진품처럼 보이도록 오래된 문서를 캔버스에 사용하고, 고목으로 만든 솜으로 그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라 벨라 프린치페사’가 가짜라는 그린현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년에 걸친 실험실 검사 결과 이 작품은 그린현의 주장과는 달리 최소한 250년 이상 됐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에냥 12월호

십시일반

기부하는 당신이 있어
세상, 아직 따뜻합니다

‘십시일반’의 기부와 나눔활동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든다. 시대가 변하면서 후원금을 내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기존 전통적인 나눔방식에서 요즘은 기부와 봉사를 하면서 재미까지 챙기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을 맞아 예향은 기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앙상을 주목했다. 예향 12월호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부탁해’를 주제로 기업과 예술의 만남(메세나)을 비롯 국내에서 첫 개인기부로 건립된 도서관 등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는 기부의 모든 것을 살펴봤다.

기획으로는 올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벨라루스 출신 알렉시예비치 사레를 계기로 번역 문제를 들여다 보았다. 안타깝게도 수년째 후보에 오른 고은 시인은 올해도 수상하지 못했다. 많은 이들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작품 창작과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벨문학상뿐 아니라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번역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남부럽지 않은 스타 작가들을 소개한다.

또 다른 기획 ‘사람이 브랜드다’에서는 ‘바보 산수화’로 유명한 윤보 김기창의 고향 충북 청주를 찾았다. 불굴의 예술혼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개척한 김기창이 청주의 대표 브랜드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의 삶을 조명했다.

‘예향 초대석’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판페라테니 임형주를 만났다. 세계 3대 판페라테니로 선정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그를 만나 음악 이야기와 골 펼쳐질 전국 투어 광주 공연(31일)에 대해 들었다.

‘남도의 장인들’에서는 ‘천연의 아름다움’ 삼배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애쓰는 이찬식 장인을 만났다. ‘도시재생’ 편에서는 텅 빈 구도심을 문화콘텐츠로 채운 제주 아라리오 뮤지엄로 드를 찾았다.

‘신남도문화여지도’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근대역사문화 도시 군산을 방문해 군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가늠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회화 거장 의재 허백련’ 허달재씨 등 강연

내일 국립광주박물관

면모에 대해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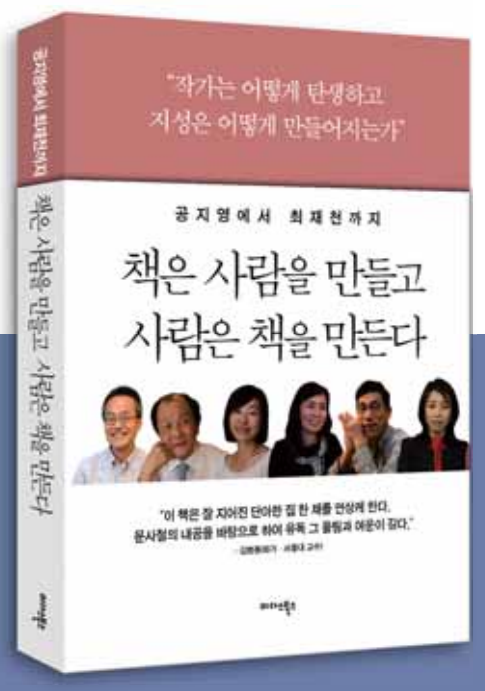
오후 3시부터는 ‘1970년대의 의재 허백련과 광주의 전통회화’를 주제로 손정연씨가 강연한다. 손씨는 1972년 전남매일신문(현 광주일보) 기자로 입사한 후 허백련과 제자를 그리고 광주 전통회화의 동향에 대해 취재하면서 알게 된 일화를 소개한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오는 2016년 2월 21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2-570-703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